

파워 숄더 재킷의 디자인 및 패턴전개 방법

Pattern Making Method and Design of Power Shoulder Jackets

박상희, 이은혜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의상학과

Sanghee Park(coolsanghee@baewha.ac.kr) Eunhae Lee(gnleena@gmail.com)

요약

여성복에 있어서 09/10년 시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파워 숄더 룩이다. 파워 숄더 룩은 단순히 패션니스타들에서만 아니라 당당히 스트리트 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파워 숄더 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킷이 여성복의 핵심 아이템의 하나로 부활하면서 재킷의 어깨 각도는 0도에서 30도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어깨 각도 중 10도, 15도, 20도의 형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턴의 형태는 몸판의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확장한 어깨변형 패턴, 어깨선과 함께 소매산 부분을 절개한 소매산 변형 패턴, 몸판과 소매가 연결된 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파워 숄더 패턴 전개는 어깨 각도가 높아질수록 각이 시작되는 점이 목옆점에 가깝게 하고 어깨끝점이 확장되어야 소매의 외관형태가 편안하고 피트성이 좋아진다. 어깨 변형의 경우 앞뒤 진동선의 시작점인 어깨점과 소매산의 정점 부분의 선이 완만하게 이어지도록 S라인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매산의 ease분량이 일반 재킷 소매보다 많아야 파워 숄더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소매변형 패턴은 중심쪽 소매의 소매산 높이는 기본소매 소매산높이의 1.5cm를 외곽 소매분량으로 처리한 것을 고려하여 소매산 높이를 설정하고 어깨 각이 커질수록 외곽소매의 소매산 폭을 크게 함으로서 소매의 어깨점이 목옆점 방향으로 휘지 않고 각이 선 파워 숄더가 완성된다. 소매변형과 소매와 몸판연결 패턴의 경우 어깨점과 상완이 연결되는 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며 어깨각도도 다른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와 같이 파워 숄더 재킷 패턴은 패턴 제작시 디자인적인 요소를 충분히 감안한 패턴 설계와 함께 소매의 달림선 위치, 어깨너비, 어깨 높이 확장량, 소매통의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심어 : | 여성복 | 재킷 | 파워 숄더 룩 | 패턴제작법 |

Abstract

Power shoulder look is most noticeable trend in women's wear in the 09/10 season. Specially jackets with sharper angle and wider shoulder became the best item since then, and were chosen for must-have item by fashion directors. Jacket occupied 50% in power shoulder items. Its shoulder angle was from 0 to 30 degree but items with 15 degree stood out among them. There are three methods to make power shoulder look jackets; shoulder extension method with moving shoulder tip up and sleeve cap height, method of extension and cutting sleeve cap with shorten shoulder length, and method of extension and moving shoulder tip up in the sleeve with shoulder line like raglan sleeve.

As a result, shoulder angle is higher, starting point of shoulder line is closer to side neck point and shoulder point is extender to outside for appearance and fit. In shoulder extension method, the arm hole line was drawn with care by matching joining shoulder seam and setting the sleeve into the arm hole.

In sleeve cap transformation, it is desired that starting point shoulder angle is moved closely to side neck point. In case of the sleeve with shoulder line, it needs to consider enough ease of shoulder and upper arm.

For making patterns of power shoulder look jacket, it need to consider arm hole line, shoulder length, shoulder point position, sleeve cap height and sleeve width with interpretation design facts.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clothing construction method of power shoulder jacket, it is of help to pattern making for various power shoulder design items.

■ keyword : | Women's Wear | Jacket | Power Shoulder Look | Pattern making up |

I. 서론

여성복에 있어서 09/10년 시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파워 숄더 룩이다. 파워 숄더 룩은 단순히 패션 니스타들만이 아니라 당당히 스트리트 패션의 형태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며[1] 재킷이 여성복의 핵심 아이템으로 부활하면서 그 디자인과 형태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초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패션계 전반에 북고무드가 많이 드리워지면서 우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과 함께 80년대 누렸던 호황기를 그리워하는 북고패션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2]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라인을 강조한 과장된 실루엣이 인기를 얻으면서 파워 숄더 재킷이 유행되고 있다[3].

파워 숄더 재킷은 09'SS 시즌 발만(Balmain)의 크리스토프 테카르넨이 어깨 양쪽에 탁구공이라도 넣은 듯이 붕긋한 어깨 라인의 재킷을 선보이면서 유행되었다[4]. 몸과 물리적 관계를 따져 매우 기초적인 것들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입었을 때 티셔츠처럼 편안한 의복을 추구하는[5] 테카르넨은 웨어러블한 옷을, 그리고 옷보다 그것을 입는 고객의 개성을 돋보여야한다는 피에르 발망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6]. 그는 최고급 재단과 수공장식을 일상복과 접목시키고[7] 80년대 스트리트 스타일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도록 고급화시킴으로써[8] 09/10 FW 시즌의 거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발망을 모방한 어깨를 강조한 파워 숄더 룩을 니트와 드레스에까지 등장시키고 있어 발망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다[9][10].

파워 숄더는 점차 다양한 아이템에 접목되고 다양한 어깨각과 너비 등으로 새로운 룩을 창출하고 있다. 날카롭게 각이 선 빅 숄더 재킷과 반짝이 레깅스[11], 80년대 팝스타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파워 숄더 재킷 스타일은 2009년 최고의 아이템이며 많은 패션전문가들은 이를 2009년 최고의 룩인 동시에 must have 아이템으로 뽑고 있다[12]. 이렇듯 파워 숄더 재킷이 스트리트 패션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파워 숄더의 패턴의 연구는 미미하다. 김영란[13]은 의복구성학적 패턴의 구조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패턴 제작법연구는 파워 숄더 실루엣을 위한 제작방법으로 crescent shape 소매 형태

한가지만을 제시한 이정순[14]과 파워숄더의 어깨각도의 범위를 10도 단위로 나눈 이은혜·최정옥[15]에서 보여지기는 하나 정확한 각도와 계산된 확장 치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부 부자재업체에서 파워 숄더를 위한 어깨 패드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나 패턴제작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형태적인 면만을 만족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워 숄더 재킷의 구조적 특성과 패턴 형태를 고찰하고 실질적인 패턴 제작 방법을 연구하여 패턴제작 및 실물제작을 통하여 실루엣에 따른 패턴을 제시하여 다양한 파워 숄더 룩의 디자인 및 패턴 제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아이템 및 패턴구성방법 선정

연구범위의 시기는 파워 숄더 룩이 많이 나타난 시기로 09 SS와 09/10 FW, 10 SS까지 파리, 밀라노, 런던 등 pret-a-porte 컬렉션을 중심으로 사진 자료를 고찰하였으며 파워 숄더룩의 범위는 어깨를 강조하는 형태를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어깨 실루엣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깨 각도 및 구성방법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적절한 패턴제작법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한다. 각 시즌 컬렉션에서 파워숄더 룩을 선보인 브랜드는 09SS에서 14개, 09/10FW에 43개, 그리고 10SS에서 25개로 총 59명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 시즌에 나타난 파워 숄더 룩 아이템은 블라우스, 드레스, 베스트, 재킷과 코트 및 바디수트, 케이프 등 모든 아이템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파워 숄더 룩 아이템 중 주름이나 장식 등을 이용하여 어깨 각도를 확장시킨 디자인과 사진상 어깨끝점이 수평을 이루지 않는 파워 숄더 아이템들은 제외시켰다. [표 1]은 시즌별 파워 숄더 룩 아이템의 분포로 아이템별로 보았을 때 재킷, 드레스 순이 일반적이며 FW 시즌의 경우 코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 시즌별 파워숄더룩 아이템 수

ITEM \ SEASON	09SS	09/10FW	10SS	Total
Jacket	57	112	54	223
Blouse	3	14	6	23
Coat	2	20	3	25
Jumper	1	6	1	8
Vest		7	1	8
Body-suit	4	3	1	8
T-shirt	4	6	3	13
Dress	16	56	35	107
Cape	1	5		6
Total	88	229	104	421

표 2. 파워숄더 룩의 패턴 형태별 비율

SEASON	SHAPE	Item Quantity	TOTAL
09SS	SHOULDER TRANSFORM	38(43.2%)	88
	SLEEVE TRANSFORM	19(21.6%)	
	SLEEVE-BODICE COMB	31(35.2%)	
	etc.		
09/10FW	SHOULDER TRANSFORM	123(53.7%)	229
	SLEEVE TRANSFORM	57(24.9%)	
	SLEEVE-BODICE COMB	45(19.7%)	
	etc.	4(2.7%)	
10SS	SHOULDER TRANSFORM	17(16.3%)	104
	SLEEVE TRANSFORM	42(40.4%)	
	SLEEVE-BODICE COMB	40(38.5%)	
	etc.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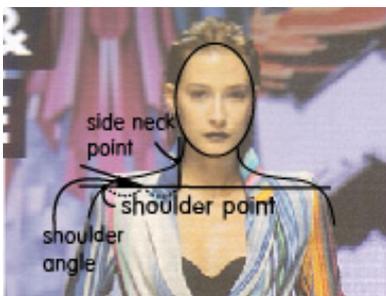


그림 1. 파워숄더 룩 어깨 각도 측정법

따라서 본 연구는 [표 1]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재킷류를 분류하여 파워 숄더 룩의 어깨 각도 구성분포와 패턴상의 소매구성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어깨 각도는 양 어깨끝점을 수평으로 연결한 후 목옆점과 어깨끝점의 직

선거리를 이등분 한 지점에서 파워 숄더 의류의 어깨각도를 측정하였다[16]. 파워 숄더 룩 실루엣을 만드는데 있어 몸판의 어깨선의 각도를 수정한 어깨변형과 어깨 길이를 줄여 어깨끝점을 몸판쪽으로 이동시킨 후 소매 패턴에 변화를 준 소매 변형, 그리고 몸판과 소매가 한 장으로 연결되는 어깨 소매 연결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2]는 파워 숄더 룩의 패턴 구성상에서 분류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기타의 경우는 견장 또는 어깨를 강조하는 장식류로 파워 숄더를 연출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상의 비율은 어깨변형이 09 SS 시즌에 38, 019/10 FW 시즌에 123, 10 SS 시즌에 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매변형 09 SS 시즌에 19, 019/10 FW 시즌에 57, 10 SS 시즌에 42, 그리고 어깨 소매연결형이 09 SS 시즌에 31, 019/10 FW 시즌에 45, 10 SS 시즌에 40 순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름과 견장과 같은 장식효과로 파워 숄더 룩을 나타낸 패턴 형태를 제외하였고 어깨변형, 소매변형, 그리고 소매 연결형 패턴을 제작하였다.

2. 연구 패턴 제작 및 설계

패턴 제작의 기본 사이즈는 의류산업의 20대 여성의 표준 가슴둘레 84cm를 기준으로 기본 토르소원형과 두 장 소매 원형은 여유분이 비교적 적은 ESMOD[17] 원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매 변형 패턴과 어깨-소매연결형은 pattern magic[18]에서는 내부 소매 패턴의 설정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Pattern making for fashion design[19]은 외부소매패턴 제작법을 참고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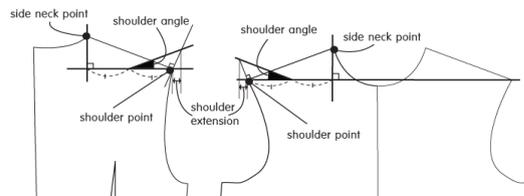


그림 2. 어깨각도와 확장 설정 방법

[그림 2]는 평면 패턴 제작시 어깨각도의 측정방법과 어깨 확장폭을 표시한 방법으로 어깨 각도가 커짐에 따라 어깨 확장폭이 조금씩 확대된다. 즉 파워 숄더 룩 패

턴의 어깨각도는 [그림 1]에 나타난 계측 방법과 동일하게 패턴의 좌우 어깨끝점을 연결하고 목옆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어깨끝점사이를 연결한 선과의 교차점과 어깨끝점을 이등분 위치에서 파워 솔더 아이템의 어깨 각도를 측정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10도, 15도와 20도로 어깨 각도를 결정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앞판과 뒤판모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패턴을 제작하였다. 어깨 너비는 어깨끝점에서 어깨선에서 수직이 되도록 올려서 자연스럽게 확장시켰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워 솔더 패턴의 디자인은 [그림 3]과 같이 어깨변형패턴, 소매변형 패턴, 어깨 소매연결형 패턴 3종류로 제한하였으며 동일한 어깨 각도의 유지하기 위해 드레스 폼에 실험복을 입혀 사진 평가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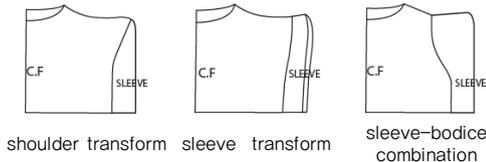


그림 3. 파워 솔더 록 제작 방법별 도식화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시즌에 따른 파워 솔더 록 재킷 경향

[표 1]의 결과와 같이 파워 솔더 록에서 가장 두드러진 아이템은 재킷으로 매 시즌마다 다양한 디자인의 재킷에 파워 솔더 록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킷을 패턴 구성 형태에 따라 구분지어보면 [표 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목판의 어깨 변형이 82, 소매 변형이 77, 그리고 어깨 소매 연결 형태가 56로 나타났다. 어깨 길이를 줄이고 소매산(sleeve cap)부분을 확장시킨 소매 변형 패턴의 형태는 루이비통(louis-vuitton) 컬렉션에서 나타난 소매를 두 장으로 분리한 절개방식과 소매산부분을 다투로 처리하거나 소매산부분 일부만을 소매에서 분리하여 소매정점에 절개선을 두는 변형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 재킷의 패턴 구성형태 비율

형태	시즌			
	09SS	09/10FW	10SS	TOTAL
SHOULDER TRANSFORM	25	55	2	82
SLEEVE TRANSFORM	17	29	31	77
SLEEVE-BODICE COMB	15	24	17	56
etc.		4	4	8
TOTAL	57	112	54	8

표 4. 시즌별 재킷의 어깨 각도 비율

시즌	형태	각도								TOTAL
		--0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 UP TO	
09SS	SHOULDER TRANSFORM	4	2	6	8	5				25
	SLEEVE TRANSFORM		1	4	8	3			1	17
	SLEEVE-BODICE COMB			6	1	3	2	1	2	15
09/10 FW	SHOULDER TRANSFORM	6	2	9	22	14	1	4	1	59
	SLEEVE TRANSFORM	4		4	4	7	6	2	2	29
	SLEEVE-BODICE COMB	1		3	5	6	4	4	1	24
10SS	SHOULDER TRANSFORM	1					2			3
	SLEEVE TRANSFORM	6	2	5	13	6	2			34
	SLEEVE-BODICE COMB	1		4	5	4	3			17
TOTAL		23	7	41	66	48	20	11	7	223

[표 4]에서 나타난 재킷의 어깨 각도는 시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11도 이상 15도 이하 형태의 재킷이 66 스타일로 두드러졌으며 16도 이상 20도이하가 48 스타일, 6도 이상 10도이하가 41스타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10도 이하의 디자인은 09SS와 10SS서 많이 보이고 20도 이하의 재킷은 09/10 FW 시즌에 많이 나타난다. 이는 09SS시즌은 파워 솔더 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고 10SS 시즌은 파워 솔더 록에서 빅솔더 록으로 변화해가는 경향과 함께 SS시즌의 가벼운 소재 아이템은 높이 솟은 어깨형태가 부담스럽게 보여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09/10 FW시즌은 파워 솔더 록의 절정 시기로 다른 시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깨를 강조하는 디자인 수도 증가되고 어깨각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진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어깨 각도에 따른 재킷 패턴 형태를 구분하여 보면

09SS와 09/10FW 시즌에서 많이 보여졌던 어깨변형의 경우 10 SS 시즌에는 3 아이템 정도로 그 수가 줄고 어깨길이를 줄이고 몸판과 소매를 한 장으로 연결하거나 소매패턴을 확장하는 소매 변형 형태가 많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 소매패턴을 변형하는 아이템이 34개로 수가 증가하였다.

2. 파워 숄더 룩의 패턴 제작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패턴의 형태는 [그림 2]에 나타난 방법으로 패턴의 어깨끝점을 연결한 후 목옆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과의 교차점과 어깨끝점 사이를 이등분한 지점을 꼭지점으로하여 어깨각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치수는 기본 가슴둘레 84cm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체형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였다. 세 가지 패턴 모두에 일정하게 적용한 치수이며 이는 평면 패턴의 실측치수이다.

어깨 각도에 따라 변화되는 진동깊이에 따른 소매산 변화량과 어깨길이의 변화량은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패턴상 어깨 길이의 변화량은 5도 간격에 따라 약 0.25cm의 차이를 보이며 소매산변화량도 어깨각도가 5도씩 변화될 때마다 약 0.7cm변화를 보인다.

표 5. 어깨 각도에 따른 소매산 높이와 어깨길이변화

각도	기본형	10	15	20	간격(cm)
SHOULDER LENGTH	12.6	+0.45	+0.70	+0.95	0.25
CHANGE OF SLEEVE CAP		+1.10	+1.80	+2.50	0.70

2.1 어깨 변형을 이용한 파워 숄더 패턴

어깨 변형을 이용한 파워 숄더 패턴은 [그림 2]에서처럼 어깨 각도를 정하고 어깨선을 어깨 끝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연결한 어깨끝점에서 진동선의 시작이 직각을 이루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진동선을 완성한다. 이때 진동선은 U자를 이루기보다 자연스러운 선을 위하여 S자형을 이루면서 [그림 4]와 같이 그린다. 원형의 어깨 끝점과 변화된 어깨끝점의 간격, 즉 소매산 변화량을 측정하고 이와 같은 분량만큼 소매의 소매산 분량에 변화를 준다. 파워 숄더 패턴의 경우 소매산의

ease분량이 일반 재킷보다 많은 양이 필요한데 이는 어깨각을 높임으로서 진동둘레가 확대되고 자연스러운 어깨와 소매산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어깨 패드 두께 분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ease량이 필요하여 ease 분량을 0.5~1cm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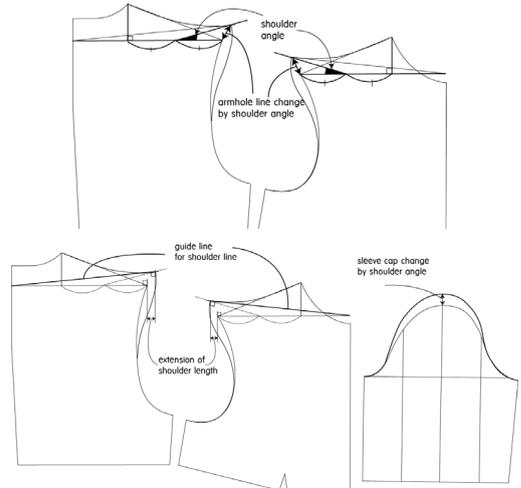


그림 4. 어깨 변형의 파워 숄더 패턴 제작방법

어깨변형을 이용한 파워 숄더 패턴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 어깨선과 높아진 어깨 끝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1/2부분에 자연스런 곡선을 만들어 그렸다. 이는 목옆점에 가까울수록 목이 짧아 보이고 솟은 어깨 체형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어깨끝점에 가깝게 되면 어깨선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그려 지기가 어렵다. 디자인에 따라 목옆점과 어깨 끝점을 곡선이 아닌 일직선으로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깨 각이 높은 디자인으로 제작할 때 보여지는 형태이다.

2.2 소매산 변형을 이용한 파워숄더 패턴

소매산 변형 패턴은 측면에서 보여지는 소매의 길면으로 소매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내부 중심소매와 팔의 안쪽면에 닿고 소매산의 정점을 포함하는 외부소매로 나누어진다. 이 패턴은 몸판의 어깨길이의 일부를 줄이고 줄인 부분을 소매산 부분에 연장시켜 어깨 끝점보다 진동선이 몸판 쪽으로 치우쳐진다. 이는 어깨끝점을 높

일 때 연장되지 않은 소매산 부분만으로는 어깨선이 높아진 어깨각도에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깨변형 패턴과 같이 어깨 각도를 결정해서 그런 다음 어깨끝점 높이를 측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외부소매의 소매산 폭과 내부소매의 소매산 높이 상승폭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깨 각도를 먼저 정하고 [그림 5]와 같이 어깨 길이의 일부를 소매산의 확장분량으로 사용하였다. 즉 몸판의 어깨 들임분만큼을 소매산 부분에 연장시켜 패턴을 제작하였다. 어깨 들임분없이 소매산의 높이만을 더하여 적용할 경우 어깨너비가 확장되어 어깨가 넓어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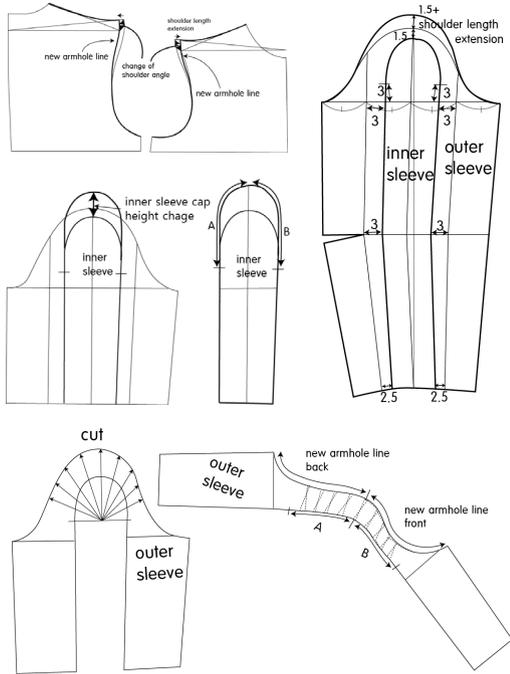


그림 5. 소매산 변형의 파워숄더 패턴 I

내부 중심소매의 경우 기본소매의 소매산 정점을 기준으로 1.5cm 아래로 떨어진 부분에서 소매산을 그렸으며 소매폭의 경우 소매의 앞과 뒤폭의 1/2 지점에서 상완은 3cm, 소매부리는 2.5cm 안쪽으로 제작하였다. 내부 중심소매의 소매산의 높임정도는 소매의 진동깊이선과 몸판의 진동깊이선을 맞추고 옆선과 소매 중심

선이 일치하도록 한다. 앞뒤 어깨끝점을 연결하고 내부소매의 소매산 정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과이 교차점을 찾는다. 교차점과 소매산의 정점 간격의 1/2지점을 기준으로 어깨 각도 상승폭만큼 높였다[그림 6]. 내부소매산 높이를 어깨끝점 연결선에 맞추어 올릴 경우는 확장폭이 지나치게 커지고 소매의 어깨끝이 목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며 기본 소매산에 높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파워 숄더의 효과가 생기지 않았다. 내부소매와 외부소매의 기본선이 완성되면 이를 분리하고 외부소매의 소매산둘레와 몸판의 진동둘레 길이에 맞도록 [그림 5]와 같이 패턴을 완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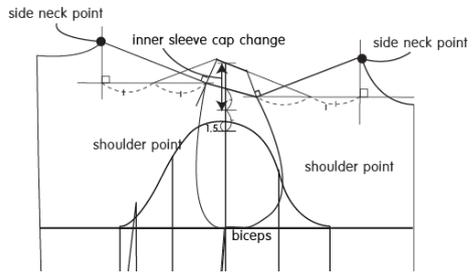


그림 6. 소매산 높이 설정 방법

이때 외부소매의 어깨길이의 경우는 어깨 각도 변화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확장되어야만 어깨와 상완부분의 형태안정성이 좋아진다. 또한 어깨각도가 높아질수록 어깨선은 목옆점에서 어깨끝까지 직선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이는 어깨각도가 높을수록 어깨선의 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매변형 형태의 파워 숄더 패턴의 경우가 다른 형태의 패턴제작법들에 비해 절개법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패턴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어깨부분과 연결되는 소매산부분만 패턴에 변화를 줌으로서 한 장 소매의 패턴으로 또는 소매산부분만 따로 패턴을 제작하는 방식 등으로 파워숄더를 제작하는데 방법은 [그림 7]과 같으며 외관 실루엣의 결과는 앞선 소매산 변형의 파워 숄더 패턴과 동일하므로 본 연구 실험복에서는 패턴 II는 제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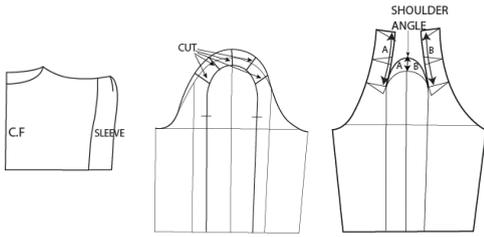


그림 7. 소매산 변형의 파워숄더 패턴 II

본 연구의 소매산변형 패턴 제작시에는 소매산이 높아질수록 소매와 어깨의 연결선 즉, 진동돌레선이 목옆점으로 이동시켰는데 [그림 8]에 나타난 것처럼 어깨각도가 5도씩 상승할 때마다 몸판 어깨길이는 0.5cm정도 줄고 소매산부분이 확장되며 안쪽 소매산은 약 0.9cm간격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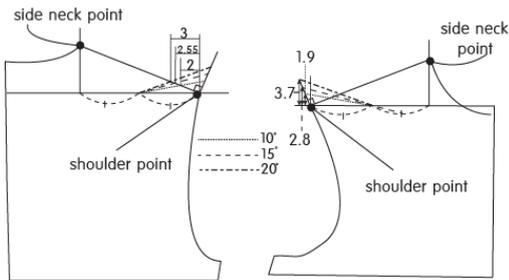


그림 8. 어깨각도에 따른 소매산과 어깨길이 변화량

2.3 몸판과 소매를 연결한 파워 숄더 패턴

몸판과 소매가 연결된 소매형태의 경우는 기모노소매 패턴과 래글런 소매패턴 제작 방법을 절충하여 제작하였다. 즉, 몸판의 옆선과 소매의 옆선은 디자인 선을 따라 분리하고 어깨부분엔 여유분을 주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래글런 슬리브의 경우 몸판의 품선 일부와 어깨끝점을 모두 소매 한 장으로 제작되어지므로 이 부분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활동성을 위해 여유가 많은 운동복이나 스트레치 소재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운동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분이 적은 재킷 패턴으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깨끝점에서부터 앞품과 뒤품의 진동부분, 즉 소매의 상완부분에 여유분을 주지 않으면 파워숄더 패턴의 경우는 어깨 곡선에 따른 여유 부족으로

활동에 불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 패턴은 소매산과 진동돌레선의 너치점을 맞추고 소매를 위치할 때 소매산과 어깨끝점에 1.5cm 간격을 주어 여유분을 주었다. 결과적으로는 소매의 어깨끝점과 상완부분에 기본 원형 소매 패턴보다 0.5cm의 여유분이 앞·뒤판에 각각 들어간 형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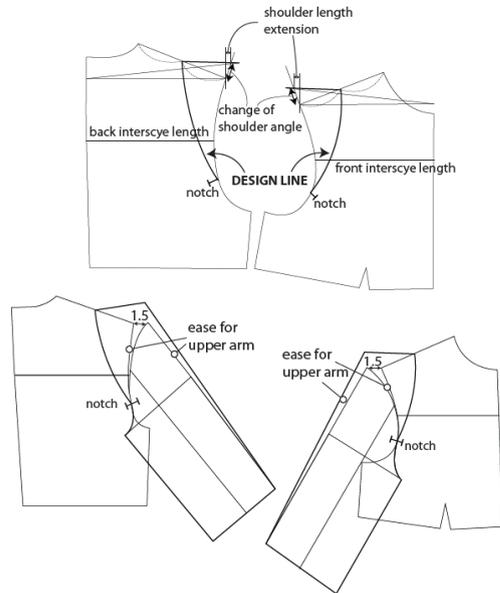


그림 9. 몸판과 소매 연결형의 파워숄더 패턴

[그림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몸판과 소매일체형의 패턴은 몸판의 일부를 소매와 연결시킨 것으로 몸판패턴의 연결부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파워 숄더 디자인 중 래글런 슬리브 디자인 절개선을 참고로 어깨선 중간, 즉 어깨길이의 1/2에서 절개선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이 종류 패턴의 경우 어깨끝점에서 상완부분으로의 연결선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상완에 여유분을 더하여 주었다.

2.4 실험복 패턴의 어깨 각도 비교

위에 제시된 3가지 패턴의 각각의 각도변화를 준 패턴에 대한 사진 촬영을 통하여 착장시의 어깨 각도의 변화를 실측하였다. 각각의 패턴에 대한 착장시 실측 각도는 패턴상의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입체적인

어깨의 굴곡이 평면형태의 패턴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은 패턴의 어깨 각도에 따른 착장 외관상의 각도를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패턴 형태에 따른 실험패턴의 실물 제작시 외관각도는 어깨 각도가 높아질수록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15도 이상이 되면 입체적인 어깨굴곡으로 인해 패턴의 각도와 착용 사진상의 각도와 차이를 보인다. 패턴 제작시에는 원하는 어깨 각도량을 측정한 후 어깨변형과 소매변형의 경우 10%, 소매 연결 형태의 경우 수치의 15%을 더하면 실제 원하는 각도의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즉 15도 어깨각도의 파워 솔더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어깨변형과 소매변형의 경우 16.5도, 소매연결 형태의 경우 16.7도 정도로 제작한다. 이는 평면적인 패턴이 어깨의 굴곡에 따라 제작되면서 오는 오차 범위이며 어깨 각도가 상승할수록 그 오차범위는 확대된다.

표 6. 실험복 패턴의 어깨 각도별 실측치 (단위:cm)

형 태 \ 각 도	10	15	20
SHOULDER TRANSFORM	10.0	13.5	17.7
SLEEVE TRANSFORM	10.0	13.5	17.5
SLEEVE-BODICE COMB	9.5	13.3	17.2

즉 패턴의 형태에 따라 실물각도에 차이를 보이는 데 소매변형과 어깨변형 패턴의 경우가 비슷한 근사치를 보이며 그 다음이 소매 연결 형태이다. 소매변형의 경우는 어깨 각도가 높아질수록 어깨 길이가 비례적으로 길어져야 하며 어깨변형의 경우는 소매산의 여유분량이 일반 재킷소매보다 많은 것이 어깨각을 자연스럽게 살려준다. 또한 몸판과 소매가 연결된 형태의 경우는 상완부분의 여유분이 일반 소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함은 물론 다른 형태의 패턴에 비해 더 많은 분과 어깨 각도분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패턴 제작시 어깨 각도별 패턴상의 어깨길이와 소매산 높이 확장량 (단위:cm)

부분별 확장량 \ 어깨각도	10	15	20	간 격
SHOULDER EXTENSION LENGTH	+0.25	+0.60	+0.95	0.35
CHANGE OF SLEEVE CAP HEIGHT	+1.40	+2.25	+3.10	0.85

어깨 각도에 따라서 실물을 제작한 결과 패턴의 실측 치수는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어깨각도가 5도가 높아 질수록 어깨길이는 0.35cm, 소매산 높이는 0.85cm 씩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파워 솔더 패턴은 [표 7]에 나타난 변화간격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파워 솔더 록의 어깨 각도가 10도 이하일 경우는 패턴 제작시 원하는 각도 또는 높이 확장량만 적용시키면 되지만 매 시즌에 가장 많이 보여진 어깨 각도 15도와 그 이상의 어깨각을 원하는 경우는 각도에 비례되는 여유분이 더해져야 원하는 각의 파워 솔더 록을 연출할 수 있다. [표 4]에서 파워 솔더 재킷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15도 각도 패턴 제작시에 필요한 어깨각도에 따른 어깨 점과 어깨길이 확장치수를 [표 8]에 나타냈으며 각각의 패턴형태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인다.

표 8. 어깨 각도 15도 패턴 제작을 위한 필요치수 (단위:cm)

변화량 \ 형 태	SHOULDER HEIGHT	SLEEVE CAP IN OUTSIDE SLEEVE	SLEEVE CAP IN CENTER SLEEVE
SHOULDER TRANSFORM	2.30		
SLEEVE TRANSFORM	2.00	+1.60	+3.7
SLEEVE-BODICE COMB	2.40		

소매 변형 패턴이 어깨 변형패턴에 비해 어깨상승 치수가 적은 이유는 소매 달림선이 몸판쪽으로 약 1.0m 정도 이동하였고 따라서 외부소매의 소매산부분이 이를 커버하고 상완부분에 충분한 여유를 주기위하여 1.6cm정도 분량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중심 소매의 소매산은 기본형에서 1.5cm 각인 분량과 어깨 상승폭을 더하여 약 3.7cm 를 높여주면 15도 각도의 패턴이 완성되었다.

몸판과 소매가 연결된 형태의 패턴은 소매의 소매산 둘레와 몸판의 진동둘레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 어깨와 상완부분에 착용감을 용이하도록 한다. 어깨 높이 확장 폭이 다른 패턴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매 달림선이 몸판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몸판에서의 여유분 또한 필요하다. 본 치수로 제작된 실험복은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목과 어깨 끝점의 이등분 위치에서 어깨 각도를 측정시에 모두 15도 각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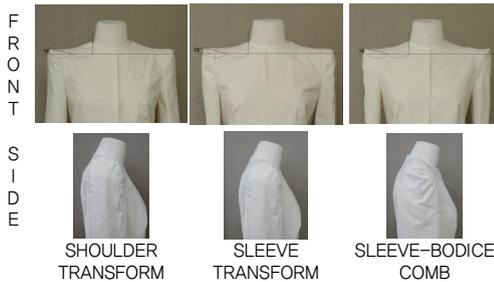


그림 10. 어깨 15도 각도의 실험복 외관 형태

IV. 결론

파워 숄더 룩의 경우 아이템 중 재킷의 형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킷은 어깨 각도는 0도에서 30도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킷의 다양한 어깨 각도 중 10도, 15도, 20도의 형태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턴의 형태는 몸판의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확장한 어깨변형 패턴, 어깨선과 함께 소매산 부분을 절개한 소매산 변형 패턴, 몸판과 소매가 연결된 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각도에 따른 패턴의 전개 결과 어깨 각도가 높아질수록 각이 시작되는 점이 목옆점에 가까워지고 어깨끝점이 확장되어야 소매의 외관이 좋아지는데 이는 솟아오른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다. 15도 이상의 각을 원할 경우는 전체 어깨너비를 비례적으로 0.5~1.5cm 정도 확장시켜 파워 숄더의 어깨끝점이 목옆점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였고 소매의 달림선과 맞음새를 편안하게 하였다. 어깨 변형의 경우 앞뒤 진동선의 시작점인 어깨점과 소매산의 정점 부분이 직각을 이루고 선이 완만하게 이어지도록 S라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산의 ease분량이 일반 재킷 소매 2cm보다 많은 3cm 이상의 경우가 파워 숄더 실루엣의 소매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출되는데 이는 패턴이 진동 둘레의 확장에 따라 필요한 ease분량이 비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매변형 패턴은 좀 더 다각적인 주의가 필요한데 먼저 중심소매의 소매산 높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소매 소매산높이의 1.5cm를 외부 소매의 소매산 분량으로 처

리한 것과 기본 소매산 높이와 어깨끝점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내부 소매산의 시작점을 결정하고 확장된 소매산 높이를 설정한다. 어깨각이 커질수록 외곽소매의 소매산 폭을 크게 함으로서 소매의 어깨점이 목옆점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각이 선 파워 숄더가 완성되며 결과적으로 어깨 길이가 확대된다. 또한 소매변형 패턴과 소매와 몸판이 연결된 패턴의 경우 소매의 상완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없으면 활동시에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며 외관상 어깨각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보여지므로 상완 부분에 충분한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파워 숄더 재킷 패턴은 원하는 어깨 각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들이 보여지는데 패턴 제작시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충분히 감안한 패턴 설계와 함께 소매의 달림선 위치, 어깨너비, 어깨 높이 확장량, 소매통의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재킷, 여성복 주 아이템으로 부활”, 패션비즈, pp.100-101, 2009(8).
- [2] <http://bntnews.hankyung.com>.
- [3] <http://www.hankooki.com>.
- [4] “Balmania”, 보그 코리아, pp.135-137, 2000(6).
- [5] “Wild boy of Balmain”, 엘르, pp.68-70, 2010.
- [6] “Manmain’s back”, 하퍼 바자, pp.182-183, 2009(3).
- [7] “The look of designer”, 인스타일, pp.98-99, 2009(8).
- [8] “New, new look”, 보그 코리아, pp.138-139, 2009(8).
- [9] “Collection report”, 엘르, pp.169-174, 2009(5).
- [10] “Clothes we love”, 인스타일, p.298, 2009(9).
- [11] “Power dressing”, 보그코리아, p.103, 2009(8).
- [12] “clean mood에서 80년대 스타일까지”, 패션비즈, pp.92-96, 2009(8).
- [13] 김영란, “파워 숄더 룩의 패턴 구조 분석”, 디자인

- 인학 연구, 제23권, 제4호, pp.265-274, 2011.
- [14] 이정순, “과워 솔더 재킷에 적용된 Crescent shaped sleeve의 패턴 제도법”,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9-71, 2011.
- [15] 이은혜, 최정욱, “어깨각도에 따른 과원솔더 패턴 전개방법 연구”, 기초형학연구, 제12권, 제3호, pp.399-405, 2011.
- [16] “Collection report”, 엘르, p.168, 2009(5).
- [17] M. Noëlle and P. Trouver, *Pattern making manuel*, Toute reproduction interdite, pp.79-87, pp.139-140, pp.152-156, 1995.
- [18] 中道友子, *Pattern magic*, Vol.1, Bunka publishing Co, pp.36-37, 2008.
- [19] H. J. Armstrong, *Pattern making for fashion design*(5th ed.), Prentice Hall, pp.321-322, 2010.

저 자 소 개

박 상 희(Sanghee Park)

정회원



- 1994년 2월 :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가정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이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배화여자 대학교 전통의상과 교수

<관심분야> :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이 은 혜(Eun hae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가정학석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배화여자 대학교 전통의상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패션디자인, 의복구성